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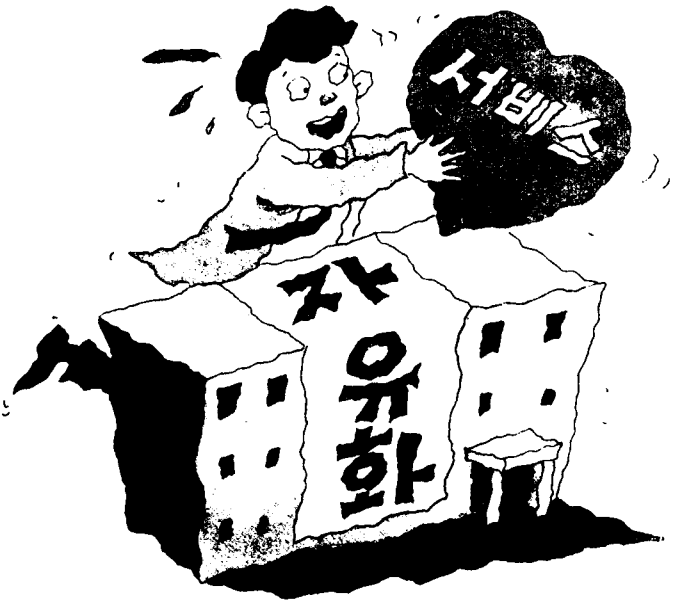
재무부는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보험서비스의 부실, 무리한 리베이트 지급 등 보험 부조리를 방지하고 보험 시장의 경쟁을 유도, 국내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자유화 조치는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궁극적으로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과 함께 경쟁력이 없는 보험 회사는 건디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 방안중 손해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보험 요율이 자유화되면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는가?

▶ 보험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업계 전체의 통계를 기초로 산출한 보험료를 참고해 보험료를 결정하거나, 보험 회사 자체의 통계를 기초로 결정할 수 있다. 자유 요율 체제로 이행할 때는 영향력이 큰 보험 회사를 정책 파트너로 하여 가격 상황 및 가격 조정 배경 등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여타 보험 회사들은 주요 보험 회사의 가격 조정을 참고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여건을



조성하게 된다.

☐ 자동차 보험의 할인 할증률 적용 방법

▶ 할인율은 현행대로 1년 무사고마다 10% 포인트씩 최고 60%까지 할인된다. 할증률은 자가용 등의 개별 계약과 영업용 10대 이상·업무용 50대 이상인 단체 계약으로 구분, 사고 유형과 사고 원인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가용 운전자 등 개별 계약에 든 계약자가 별점 4점인 사망 사고를 냈을 경우 1점마다 10% 포인트씩 40%를 기본

할증률로 적용하나, 여기에 회사마다 각기 다른 기준을 통해 ±10% 포인트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30~5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단체 계약의 경우 손해율이 1백20%이면 현재의 할증률 30%에 회사별로 ±20% 포인트 범위에서 가감해 10~15%의 할증이 적용된다.

☐ 사고 유형에 따른 유형별 별점은

▶ 사고 유형 및 사고 원인별 별점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사고 유형별 점수

	사 고 내 용	건당점수
대 인 사 고	사망사고	4
	중상1급	4
	2~7급	3
	8~12급	2
	13~14급	1
	자손사고	1
물 적 사 고	50만원 이하	1
	50만원 이상	0.5

사 고 원 인	점수
• 주취 한계 초과 및 약물운전	3
•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3
•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	3
• 교통사고 특례법 제3조 2항 단서 규정 위반 및 주취 운전	1

※ 단서조항 10개 : 인도 돌진, 개문 발차,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보도 사고, 건널목 사고, 뺑소니,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문 특별 할증 요율이란

답 실질적인 교통 사고 예방과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개인용의 경우 현행 최고 할증률 1백%에서 50%로 축소 조정했다.

적용 대상은 개인의 경우 현행 음주·마약 운전 사고자 등 6개 기준에서 보험금 사기 청구 등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기준은 제외하는 대신에 중앙선 침범 등 중대 법규 위반 사고자 및 사망·중상 사고 등을 추가해 5개 유형으로 개선함으로써 교통 사고 예방 효과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단체의 경우 손해율이 1백50% 이상인 업체와 보험료 할증을 회피하기 위해 소속 업체를 변경하거나 공제에서 이전된 영업용 차량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 할증의 적용률은 보험

회사가 50% 범위내에서 사고 원인·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나치게 높은 할증률로 인해 보험 가입의 기회를 방지토록 했다.

문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할증하게 되는가

답 운전자의 법규 위반 내용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법규 위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 회사와의 전산 시스템 연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전 준비에는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외국의 경우에는 교통 사고뿐만 아니라 교통 법규 위반시에도 보험료에 반영되고 있다.

문 일반 손해보험 범위 요율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답 표준 요율의 상하 일정 범위내(종목별 ±5~±10%)에서 각 보험 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5%가 적용되는 보험은 선박·도난·기관 기계·일반 배상 보험 5종목·보험 2종목·동산종합보험이며, ±10%가 적용되는 보험은 운송·조립·가스 배상·건설 공사·기타 4종목이다.

문 일반 손해 보험의 자유화 내용은

답 보험 상품 가격 자유화는 94년 4월에 제1단계, 95년 4월에 제2단계, 96년 4월에 제3단계의 자유화가 시행되며, 각 단계마다 2년간 범위 요율을 시행한 후 자유 요율로 이행된다.

제1단계에서는 국제성이 강하거나 계약자가 상품 비교 및 협상 능력이 있는 기업성 보험 종목인 5백톤 미만의 선박 보험·운송·도

난·기관 기계·조립·건설·배상 책임·근재·동산 종합 보험등 기업성 특종 보험이 자유화 된다.

제2단계에서는 수출 적하 보험·수입 적하 보험·일반 화재 보험 등 제1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기업성 보험이 해당된다.

제3단계에서는 주택 화재 보험·상해 보험·종합 보험 등 가계성 특종 보험과 보증 보험 등 1·2단계에서 제외된 전 종목이 자유화 된다.

다만, 장기 손해 보험은 생명 보험 가격 자유화 추이 등을 감안, 98년 이후에 검토한다.

문 자유화로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가

답 단기적으로 상호 경쟁에 따라 다소 인하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급 보험금에 상응하는 적정 보험료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 나이·운전 경력 등 가입자 특성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화 한다면

답 가입자 특성에 따라 표준 요율에 보험회사가 상하 일정 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신축적으로 적용토록 하는 것이다.

운전 경력이 2년으로 35세의 남자의 경우 현행은 운전 경력 10%, 나이와 성별에 따른 5%등 15% 할증률을 모든 보험 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으나 자유화 시에는 보험 회사의 판단 요소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외국의 경우에는 지역·직업 등의 요소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는 상당 기간동안 충분한 량의 통계를 모아야 가능하다. ()